

요한 3 서 묵상 4  
(10/16/2020, 금)

찬양: 280(338)(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3 서 1:12-15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한 후에 따뜻한 인사를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사람과 진리에 의해 증거를 받은 데메드리오. 12 절 -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당시 헬라세계에서 숭배하는 여신 중의 하나인 '데메테르(Demeter)의 신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 4:14 에 언급된("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고 보기도 하고, 요한이 보낸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했다가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너(가이오)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이오도 데메드리오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오가 잘 아는 이유는,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부탁으로 가이오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요한에게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가는 사람일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와는 대조되는 인물이며, 그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았고, 요한을 포함한 모든 동역자들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보증된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증거받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과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펴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옵나니"(렘 17:10).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보옵나니. 요한은 데메드리오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는 요한 뿐만 아니라, 가이오를 비롯한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의 증거를 받았습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금과 빛 그 자체이며, 그 본질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빛 역시 눈에 보이는 빛 그 자체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소금의 맛과 빛이 비추임 그 자체

는 그것을 맛보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증거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칭교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가견적 성도(Visible Saints)’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며, 그 새로움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가견적 성도’, 하나님과 사람의 증거와 칭찬을 받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14 절).** 요한은 요한 2 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속히 대면하여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인사말은 당시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한 요한 사도가 가진 안타까움, 답답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 등을 느끼게 합니다. 요한은 **“내가 쓸 것이 많으니”(13 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만큼 가이오와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영적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15 절).** 보고 싶다고 말한 요한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는 디오드레베의 황포 때문에 적잖은 소동과 분열과 다툼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한의 편지를 받고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가이오의 마음에 교회 내의 문제로 인해 불편함과 근심과 번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마음을 헤아리며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평강을 거두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렘 29:10-11 -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선포한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강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 낙심치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하나님과 사람들의 참된 증거와 인정을 받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3. 가난, 질병, 전쟁, 테러와 온갖 종류의 탄압으로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